



##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행 10:1-5)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성자 예수님, 명성교회 특별새벽집회를 38년째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40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 특별새벽집회를 한결같은 은혜,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행로에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섬겨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입니다.

금년 9월 특별새벽집회에서는 이탈리아 군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고넬료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의 창문을 활짝 여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배우고 경험하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 이스라엘 가이사랴에서 근무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전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가이사랴에만도 다섯 부대가 주둔하였는데 그중 네 부대는 지역민들로 구성되었고, 로마 군인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는 한 부대밖에 없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귀족의 아들이고 장군 가문 출신으로 가이사랴에 백부장으로 주둔하였다고 합니다.

이 군인이 유대인이 믿는 아웨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며, 지배를 당하여 고통받는 불쌍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한 로마 군인답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정욕과 교만과 힘으로 살 수 없게 수없이 억제하고 제한하는 율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기 나라의 주신(主神)인 쥬피터라는 세계적인 신을 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경외하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정치, 군사, 교육, 경제, 모든 힘과 부유함은 로마에 있었고 로마 사람이 누렸습니다. 고넬료는 수백, 수천 개의 부족 가운데 하나인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신상과 신전을 부수고 파괴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만드시고,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고넬료는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제9시(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하시는 말씀입니다.

행 10:3-8 하루는 제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옴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옴바로 보내니라

그 다음날 베드로도 제6시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끝난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 10:19-20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 환상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새시대, 구원의 시대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1) 유대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유대인을 택하시고 유대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유대인 밖의 사람은 이방인으로 영원히 저주 아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제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이방인 고넬료 한 사람이 처음 세례를 받음으로 복음은 온 세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 유대인은 로마는 망해야 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고 지배하는 나라는 속히 하나님에 의해 망하고 유대인의 시대가 올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행 1: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그러나 이제 복음시대의 주역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로마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얼마 가지 않아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로마 천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3) 자기만 믿고, 자기 자신만 의롭고, 자신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여 끊임없이 분열하고 서로 적대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죄인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최대의 장애물이 되어서 고넬료 이후 35년이 지나서 로마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구상에서 버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죄 많은 로마도 은혜를 받아 가장 거룩한 민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나, 가장 거룩한 민족으로 위장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마 21:28-30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만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마 21:34-38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마 21:42-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죄와 저주, 사망,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 우리가 가진 모든 노력, 선, 의, 수고, 희생, 고행, 능력, 종교의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나 완전한 의가 아니며, 유대인이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켰으나 그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요, 율법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전 세계를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하려 하면 천년만년이 걸려도 몇 사람밖에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는 이방인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배를 조선소에서 만들기까지는 율법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배가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사도행전의 성령시대, 교회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5) 지금은 유대인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의 싸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예언자의 심판, 저주가 가득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죄인도, 장애인도, 귀신 들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도, 창녀도, 세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고넬료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고넬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제는 고넬료를 배워야 합니다. 고넬료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으로 출발하여 → 유대인 율법의 사람이 되고 →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를 만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부요하게 하고 구원하는 고넬료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고, 10장에서 그 죄 많고 나쁘고 악하고 도덕적으로 더럽고 추한 로마 사람이 변화되어 로마시대가 열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와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